



Destination & Differentiation

Summer I 2023



클럽디 금강 WEST 6번홀



클럽디(CLUBD)의 차별화 된 블랙 리무진 카트 ‘인기’

3열 좌석 및 음료 무료 제공... 생일자 이벤트·5인 플레이 등 다양한 혜택 실시

골프장에서 라운딩 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카트다. 각 골프장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클럽디(CLUBD)의 블랙 리무진 카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클럽디에서 운영하는 블랙 리무진 카트는 일반 카트와는 다르게 편안한 3열 좌석을 제공하며 블루투스 스피커와 무더운 여름철과 겨울철 몸의 온도를 유지해줄 냉/온시트, 선풍기, 휴대폰 유/무선 충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며 시원한 고급 음료 또한 제공하고 있다. 각 골프장별로 클럽디 보은에서는 리무진 카트를 5인 플레이로 활용하여 카트비용 절감 및 넓은 공간 확보로 골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클럽디 속리산은 방문하는 골퍼를 위해 리무진 카트로 1일 1팀 무료 업그레이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클럽디 거창에선 매달 생일자 이벤트 할인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클럽디 (CLUBD)는 골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클럽디, 전국단위 전액무상 2023년 사회공헌 프로젝트 클럽디 꿈나무 실시

클럽디 보은, 속리산, 금강, 거창, 서원밸리 등 골프장서 전국 단위 동시 진행...
골프여제 박세리 사회공헌 활동 2년째 동참...6기 9월20일부터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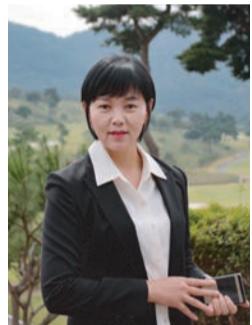
친환경 기업인 국내 유일의 벤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이도가 운영하는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가 전국 단위 사회공헌 클럽디 꿈나무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클럽디 꿈나무 프로젝트는 충북 클럽디 보은 (18홀), 충북 클럽디 속리산(18홀)과 전북 클럽디 금강 (36홀), 경남 클럽디 거창 (27홀)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한민국 10대 명문 골프장인 경기 파주시에 있는 서원밸리 CC(밸리/힐스) 등 5개 골프장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참가 꿈나무는 총 150명으로 늘어났다. 골프 여제 박세리 감독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육에 참여해 많은 꿈나무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였으며, KLPGA, KPGA 프로 또한 코치로 활약하며 골프 꿈나무 육성에 동참하였다. 지난 2022년 클럽디 꿈나무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삼성 웰스토리도 올해 역시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클럽디 꿈나무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4월, 7월 진행된 클럽디 꿈나무 4기와 5기는 전원 수료한 가운데 마무리 됐다. 올해 마지막 기수는 클럽디 꿈나무 6기는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기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디 꿈나무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lubd.com/junior/about.do>) 및 공식 인스타그램(@clubdjuni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 | CLUBD(클럽디) MAGAZINE





2단 그린의 매력을 가진 '클럽디 보은 WEST 3번'

WEST 3번 홀은 오른막 PAR3홀로 티잉 구역에 서면 전체적인 그린이 보이지 않아, 단차가 있는 2단 그린은 티샷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린 우측 경사면을 이용하면 무난하게 버디를 노려볼 수 있는 매력적인 홀입니다. 다만, 단차가 심한 좌측 훌컵 포지션일 경우에는 깃발을 향한 과감한 공략보다는 그린 중앙을 공략하여 그린 경사를 따라 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공략 포인트입니다.



코스제원 : PAR3, 125m(화이트 티), 95m(레드 티)
코스기록 : 버디 4,863회 / 파 63,365회 / 보기 77,897회 / 더블보기 35,435회 / 트리플보기 14,663회

글 | 허현숙 CLUBD(클럽디) 보은 경기 팀장



구병산과 속리산 자락이 멋지게 펼쳐진 '클럽디 속리산 WEST 1번'

WEST 1번 홀은 티잉 구역에 서면 좌측 넓은 공간이 석축으로 가려져 있어 난이도가 있는 홀입니다. 티샷 시 슬라이스를 조심해야 하며 좌측 카트길로 공략해야 안전합니다. 그린 뒤쪽으로 내리막 경사라 핀보다 짧게 공략하는 것이 좋으며 오른쪽으로는 구병산과 속리산 자락이 시야에 들어오는 멋스러운 홀입니다.



코스제원 : PAR 4, 335m(화이트 티), 297m(레드 티)
코스기록 : 버디 2,809회 / 파 85,768회 / 보기 53,451회 / 더블보기 32,832회 / 트리플보기 15,622회

글 | 남승미 CLUBD(클럽디) 속리산 경기 팀장



호쾌한 장타를 노려볼 수 있는 '클럽디 금강 WEST 6번'

WEST 6번 홀은 클럽디 금강에서 유일하게 페어웨이 Bunker가 없는 전장 399M의 우 도그렉 내리막 Par 4홀입니다. 티샷 공략 시 페어웨이 Bunker가 없어 부담이 적지만 전장이 길어 파온을 하기 쉽지 않은 홀입니다. 그린 공략 시 그린 우측에 도사리고 있는 120M의 긴 벙커를 피하여 좌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스제원 : PAR 4, 401m(화이트 티), 366m(레드 티)
코스기록 : 버디 1,580회 / 파 27,535회 / 보기 68,496회 / 더블보기 52,027회 / 트리플보기 21,027회

글 | 최은숙 CLUBD(클럽디) 금강 경기 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진 '클럽디 거창 SOUTH 8번'

SOUTH 8번 홀은 저녁 노을의 환상적인 색감으로 골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사진을 찍는 골퍼들의 눈을 빛나게 하는 클럽디 거창의 시그니처 홀입니다. 좌측, 우측 모두 해저드 처리되므로 실력이 뛰어난 골퍼라면 드라이버로 클럽을 선택하여 공격하는 것이 좋으며, 반면에 중급자나 초보자는 조금 더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린에 접근할 때는 그린 주변 벙커와 그린의 상태, 경사, 속도 등을 감안하여 공략한다면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스제원 : PAR 5, 455m(화이트 티), 395m(레드 티)
코스기록 : 버디 3,924회 / 파 26,166회 / 보기 41,897회 / 더블보기 29,922회 / 트리플보기 11,778회

글 | 박희정 CLUBD(클럽디) 거창 경기 팀장

공간 미학의 정수와 모던함을 느낄 수 있는 ‘클럽디금강’ 레스토랑



김현빈 셰프

전북 익산시에 있는 클럽디 금강은 자연의 순수함이 보존되어 있어 4계절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 레스토랑은 골프장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경치와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골퍼들에게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시선도 사로잡았다.

클럽디 금강 레스토랑 음식의 맛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현빈’ 셰프이다. 김현빈 셰프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롯데백화점(대치동) 부조리장, 아주대병원과 이대 병동 병원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골퍼들에게 영양 가득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김현빈 셰프가 클럽디 금강 레스토랑의 대표적인 메뉴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것은 불고기 버섯전골, 모둠 어묵탕, 고등어 된장찌개 정식, 떡볶이 세트이다. 불고기 버섯전골은 소불고기와 야채와 버섯, 맑은 국물이 어우러진 메뉴로 남녀노소 좋아할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메뉴다. 두 번째로 골퍼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모둠 어묵탕은 꼬치 어묵, 유부 주머니, 피시볼, 계란, 조각 어묵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 골퍼들이 즐겨 찾는 메뉴이다. 고등어 된장찌개 정식은 촉촉하고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구이와 얼큰한 된장찌개가 매력적이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국물 라볶이에 바삭바삭하게 튀긴 튀김이 같이 제공되는 떡볶이 세트는 중독적으로 매콤한 국물과 쫄깃한 떡과 어우러진 겉은 바싹, 속은 촉촉이 튀김을 즐길 수 있어 클럽하우스 인기 메뉴이다. 따뜻해지는 날씨 속 즐거운 라운딩을 즐기기 전 ‘클럽디 금강 레스토랑’에서 에너지 충전을 하는 건 어떨까.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INFLUENCER INTERVIEW

“은퇴 후 꿈나무 육성 등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졌어요!” 인생 2막을 시작한 최나연 프로

KLPGA 6승, LPGA 9승, 2010년 상금, 평균타수 랭킹 1위를 기록하며
여자 골프의 황금세대를 이끈 그녀. 은퇴 후에도 팬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인생의 2막을 연 최나연 프로를 클럽디가 만나봤다.



최나연 프로

Q.CLUBD: 안녕하세요, 프로님!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최나연 프로 (이하 최나연): 클럽디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나연 프로입니다.

Q.CLUBD: 골프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A.최나연: 우선 저는 오빠가 있어서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골프를 하셨기 때문에 연습장 같은 곳을 따라다니면서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래 아버지께서 프로 골퍼를 꿈을 꾸고 계셔서 저희 남매도 자연스럽게 골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는 골프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했었고, 저는 골프를 해보니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건 네가 한번 시작하면 취미나 이런 게 아니라 선수 생활, 프로에 꿈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시작을 하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바로 공장에 가서 제 키에 맞는 채도 제작을 했었고 프로 선생님께서 1대1로 하루 종일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프를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CLUBD: 언제부터 골프를 시작하셨나요?

A.최나연: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에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키가 지금이랑 거의 비슷 하답니다.

Q.CLUBD: 골프를 조금 빠르게 시작하신 편인가요?

A.최나연: 제가 골프를 시작하고 6개월 정도 뒤에 박세리 감독님이 물속에 양발 벗고 들어가서 친신 샷으로 US 오픈을 우승하면서 훨씬 더 골프 붐이 일어나면서 그때 시작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세리 키즈이긴 하지만 그 세리감독님이 미국에서 우승하기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시작하긴 했던 거죠.

Q.CLUBD: 혹시 골프 시작부터 주목 받으셨나요?

A.최나연: 네. 체격 조건이 조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일찍 성장을 한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다른 운동부에서도 저를 많이 탐내 하긴 했었어요. 자기네들 운동부에 들어오라고 배구부에서도 오라고 했고요.

Q.CLUBD: 골프란 프로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A.최나연: 골프는 거의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사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도 골프가 정말 좋아서 은퇴 생각이 없을 정도로 골프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했었는데, 골프가 조금 잘 안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슬럼프라는 것을 이렇게 크게 겪은 적이 없었고 프로가 되고 나서도 슬럼프라고 크게 겪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골프 인생 막판에 슬럼프가 오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젊은 것도 많았고 그만큼 얻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힘든 시간으로 인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은퇴를 딱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어요 ‘내가 골프 없이도 이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사소한 것들로 시작해 골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조금 제 머리도 좀 식힐 겸 골프 생각을 조금씩 적게 하고, 취미생활도 가져보면서 정말 작은 행복들을 느끼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골프에만 매진하고 매달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둬도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것 때문에 은퇴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Q.CLUBD: 은퇴 이후에 요즘에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A.최나연: 음. 은퇴하고도 좀 바쁘게 지냈던 게 그때 이제 막 한참 겨울철이어서 스키를 배우며 엄청 재밌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제의로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어 10주 동안 진짜 운동만 했거든요. 바디 프로필도 얼마전에 끝났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먹는 행복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려 다니고 골프 시즌이 시작되어 골프도 치고 있습니다.

Q.CLUBD: 혹시 골프를 제외하고 제일 잘하는 스포츠가 있다면요?

A.최나연: 제가 다른 스포츠를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진짜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골프는 되게 정직인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밸을 땅에 고정해 놓고 공을 치기 때문에 좀 활동적인 운동을 저는 좀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집중해서 하는 사격이나 양궁같은 타깃이 있는 운동보다는 축구도 해보고 싶고, 킥복싱도 얼마 전에 배워봤고, 스기도 하고 테니스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못하더라고요. (웃음) 선생님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기대는 뭔가 되게 많은데 약간 몸이 생각보다 안 따라준다는 느낌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Q.CLUBD: 국내외 투어 통산 15승 하셨잖아요. 정말 많은 우승을 하셨고요. 모든 대회가 다 소중하시고 기억에 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있다면요?

A.최나연: LPGA에서 첫 승, 메이저 우승, 그리고 은퇴 경기 이렇게 세 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2012년 7월초에 US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것인데요. 세리 감독님이 양발 벗고 샷을 했던 같은 골프장이였습니다. 그 당시 1998년 세리 감독님이 우승 하시고 그때가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화제가 되었죠. 그 장면을 보기만하다 14년 만에 그 골프장에서 그 대회가 다시 열리고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 대회에서 세리 키즈라는 타이틀로 우승을 한 것이죠. 박세리 감독님이 마지막 홀에서 축하도 해주셨고, 의미도 있고 평생 진짜 잊지 못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Q.CLUBD: 성공도 있지만 항상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인생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극복을 좀 하셨을까요?



클럽디 청담 오픈식 최나연 프로 모습

A.최나연: 제가 선수시절 마지막에 어려웠던 시간을 좀 보냈어요. 한 5년 정도요.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시합만 나가면 예선 떨어지고 골프가 마음 같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케이스는 결국엔 저는 은퇴를 선택한 거였어요. 제가 조금 더 극복을 타고 예전에 기량을 되찾았더라면 전 아직도 아마 선수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극복했던 방법이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 너무 얹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5년 이란 시간이 제 느낌에는 정말 10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내가 그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겼다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골프 인생을 마무리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하게 극복하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치유하고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빠져들지 않고, 힘들겠지만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수들도 다른 사람들도요.

Q.CLUBD: ‘나연이즈 백’ 유튜브 채널로 소통하시잖아요. 바쁘셔서 쉽지 않으시고, 힘들 텐데요.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A.최나연: 시작한 계기는 조금 골프가 안 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제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채널 이름도 ‘나연 is Back!’으로 한 이유가 제가 기량을 다시 되찾을 거다. 최나연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의미를 두고 나연 is Back!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거든요. 골프하시는 아마추어분과 팬들이 저를 잊지 않고 함께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Q.CLUBD: 레저브랜드 (CLUBD)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솔직한 느낌은 어떤가요?

A.최나연: 사실 안타깝게도 클럽디 골프장은 아직 못 가봤지만, 클럽디 청담 엠버서더로 선정이 되면서 공사 현장도 가봤는데요. 골프인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 골프 산업 발전에 굉장한 영향을 주시는 결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겠다요. 요즘 세대 골퍼들이라면 정말 많은 관심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CLUBD: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A.최나연: 우선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웃음). 다만 기회가 된다면 주니어 육성을 해보고 싶어요. 제 도움이 간접하게 필요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친구들한테도 많은 멘토링도 해주고 싶고, 클럽디 꿈나무 사회공헌에도 제가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Q.CLUBD: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A.최나연: 그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응원과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저와 다시 만날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저 잊지 않으면 좋겠고, 꼭 다시 팬 분들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페타꼼블리(Fait Accompli)



글 |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장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지죠?"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오르죠?"

증시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다. 영어로는 'Sell On the News'인데, 증권가에서는 기다렸던 공시와 뉴스가 떴을 경우 단 2음절로 정리해버리는 습성이 있다. "셀온!" 호재성 공시 이후, 호재성 뉴스 이후 주가가 빠지는 현상 역시 단 한 마디로 정리해버린다. "선반영!"

현실 세계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차이 하나만 말하라면 단연 '속도'를 꼽을 것이다. 필자는 세상에서 '빛' 다음으로 빠른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돈의 흐름에는 세상 오만 가지 정보가 담겨 있다. 그 정보들이 뭉치고 얹히고 설키면서 돈을 더 빠르게 움직인다. 돈이 로켓 발사체라면 수많은 정보들은 로켓의 엔진과 같다. 정보라는 엔진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돈이라는 로켓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셈이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한 마디를 잊어서는 안된다.

"페타꼼블리(Fait Accompli)"

유럽 증권계의 위대한 유산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Andre Kostolany)'가 남긴 말이다.

그 뜻은 '기정사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호재든 악재든, 주가에 상당부분 선반영 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면 주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빼꼼블리, 빼꼼블리, 페타꼼블리 등 다양한 발음으로 회자되는데, 프랑스어라서 그런지 표기법이 제각각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30%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30%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것이 컨센서스(consensus, 일치된 의견)를 형성한 상황에서 막상 '+30%' 데이터가 공시되더라도 주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 주가는 그 다음 분기 혹은 다음 해 실적 전망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지난 분기 실적이 좋았어도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 내리막이 예상된다면 주가는 하향세를 탈 수 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6개월~1년 정도를 앞서간다고 한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
작년 말 한 지인의 말이다.

"이미 시중금리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기준금리, 대출금리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지인에게 건넨 나의 말이다.

2023년 4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3.5%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즉, 기준금리가 정점을 친 것은 올해 1월이었다. 그러나 시중금리는 지난해 10월에 먼저 정점을 찍었다. 당시 국채 3년물 수익률은 약 4.5%까지 올랐는데 그게 정점이었다. 금통위 마지막 금리인상보다 3개월 앞선 것이다. 4월 26일 현재는 3.26%다. 이제는 기준금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하반기 금리인하를 조금씩 선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바탕이 되는 코픽스(신규취급액)는 지난해 12월 4.34%에서 최근 3.56%까지 내려왔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의 대출상품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코픽스와 채권시장 시차를 따져보면 채권시장이 2개월 정도 앞서서 정점을 보여준 셈이다. 코픽스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상품 금리를 정하는 시차까지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주식투자 혹은 자금조달을 계획하면서 금통위 결정만 지켜봐왔다면 기민하게 움직이는 시중금리를 보고 나중에서야 '페타꼼블리'를 실감했을 것이다.

주식은 더 먼 곳까지 먼저 내달리기도 한다. 이미 직전 분기는 물론이고 1년 뒤, 어떨 때는 3년 뒤 실적까지 주가에 반영하며 내달린다. 그것이 밸류에이션(valuation)이라는 가치 지표로 포장되어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1년 뒤보다 2년 뒤가, 2년 뒤보다 3년 뒤 전망이 더 밝다면 고평가 현상이 수긍되기도 한다.

선반영 현상이 단박에 뒤집힐 수도 있다. 예상치를 벗어났을 경우다. 대표적인 것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다.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이 혹은 더 낮게 실제치가 나타나면 주가는 요동친다. 인간은 예측되지 않는 것도 예측하고자 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에도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다. 오죽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빈도와 비율을 정리하는 퀀트 투자 방법이 있을 정도다. 앞서 10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선반영 현상은 그만큼 높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나심 탈레브는 저서 〈블랙스완〉과 〈행운에 속지마라〉 등을 통해 '귀납법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지적했다. 백조는 흰색이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백조 4,000마리가 모두 흰색이었다고 해서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단 한 마리의 검은 백조가 발견되면 이 정의는 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1697년 호주 서부에서 처음으로 검은 백조(흑고니)가 발견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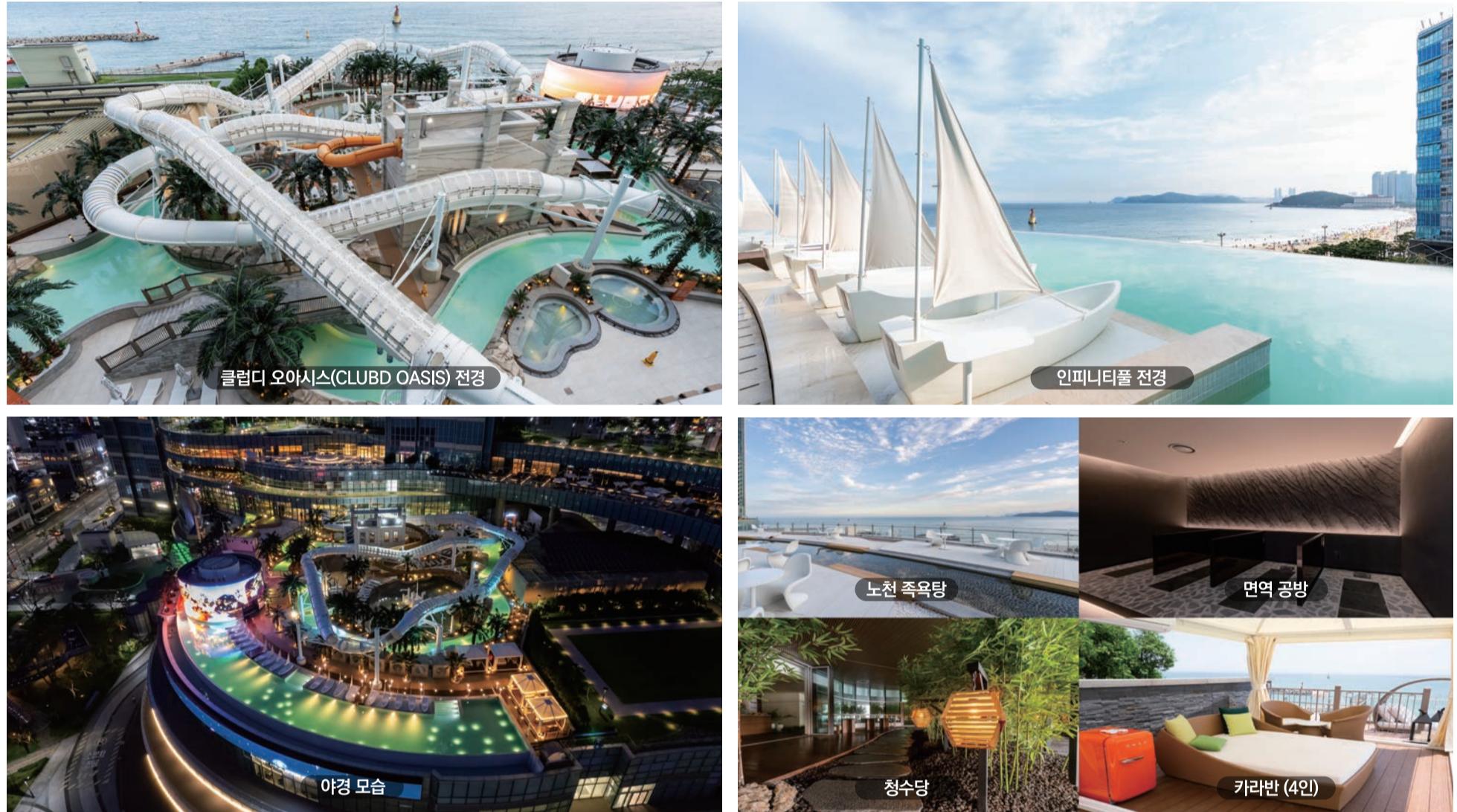
이러한 선반영 현상은 IT 기술이 발달할수록,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욱 강해진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실제에 가까이 예측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실제를 선반영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정보가 더욱 빠르게 공유될수록 선반영 현상이 더욱 진해질 것이다. 수주 계약, 실적 동향뿐 아니라 M&A 정보까지 비밀이 없는 세상이다.



돈의 흐름을 읽고 그 방향을 따라가되,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먼저 예측하고 더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높은 리스크를 담고 있다. 시기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것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시계열을 더 길게 놓고 더 멀리 보며 여유 있게 장기투자 하는 것이 방법이라면 방법이 될 것 같다.

워터파크 '틀'을 부순 (주)이도, 프리미엄 스파&워터파크 '클럽디 오아시스' 오픈

(주)이도(대표이사 최정훈)가 워터파크에 대한 '틀'을 부쉈다. 최고급 주거 공간인 해운대 엘시티를 배경으로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공간을 선보이면서다.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주식회사 이도(YIDO)는 부산 해운대에서 프리미엄 스파 & 워터파크 클럽디(CLUBD) 오아시스를 지난 7월 5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클럽디 오아시스(CLUBD OASIS)는 총 3만383m²(9209평) 규모로 동시에 최대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4층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인피니티풀과 함께 오아시스 속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파도풀을 비롯한 실내 워터파크와 푸드코트를 이용할 수 있다. 5층은 실내 사우나와 함께 테라스에서 수영복을 입고 이용할 수 있는 노천탕이 마련됐다. 도심 속 쉼을 모토로 삼는 청수당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음료를 경험할 수 있으며 6층은 해운대 바다를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야외 족욕탕과 프리미엄 캐빈 사우나를 경험할 수 있는 테라스 바, '면역공방'을 비롯한 다양한 테마의 짐짓 스파가 들어섰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 美 골프Inc가 선정한 '아시아 골프산업 영향력 있는 인물 10인'

골프장 전문 밸류업으로 K골프 위상 강화… 5월 클럽디 청담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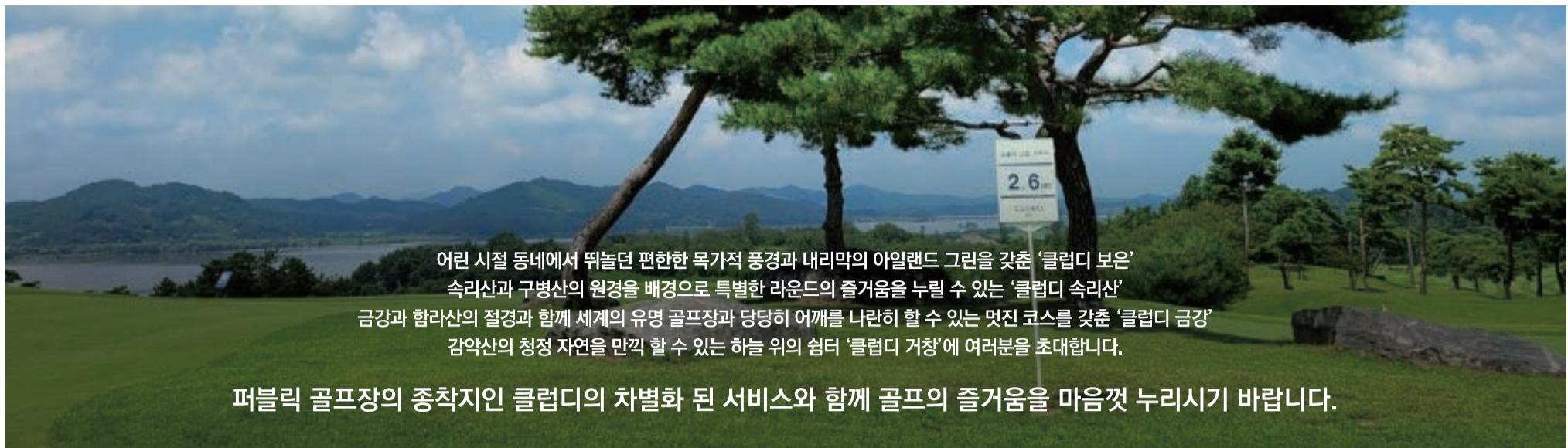
최정훈 이도(YIDO) 대표이사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골프 인물로 선정됐다. 미국 골프 전문지 '골프 Inc(Golf Inc. Korea)'는 '아시아 골프 산업 영향력 있는 인물(The Most Powerful in Asian Golf Industry)' Top 10에 최정훈 대표이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도가 오래되거나 낙후된 골프장 자산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역량으로 K 골프의 새로운 문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미래의 주역인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전액 무상의 '클럽디 꿈나무' 사회공헌을 통하여 골프를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골프를 경험할 기회는 물론 미래 대한민국을 대표할 골프 꿈나무들을 위해 무상 라운딩과 레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도는 서울 청담동에 클럽디 청담을 선보이며 새로운 컨셉트의 골프 문화 커뮤니티를 선보였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주)이도 (YIDO), 취약 계층 위한 '사랑의 자장면' 봉사활동 실시...

주식회사 이도가 '사랑의 자장면' 활동을 지난 2월 22일 인천서구노인복지관에서 약 450명의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임직원의 주도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나눔 사회공헌에서 이도 임직원들은 자장면 무료 급식을 위한 재료구매와 손질·배식·청소 등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도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이 자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힘들지만 큰 보람을 느꼈다. 다음 기회에도 이런 봉사활동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도는 그동안 WWF(세계자연기금) 및 국제환경 보전 기관 W재단에 기금 기부, 의성 쓰레기 산 처리 문제 동참, 텁블러와 머그잔 나누어 쓰기 캠페인 활동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해 온 바 있다. '사랑의 자장면' 나눔 사회공헌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다.' [글 | CLUBD\(클럽디\) MAGAZINE](#)





CLUBD 우수캐디

이 선 영
클럽디 보은
경력 9년 4개월

박 복 임
클럽디 속리산
경력 8년

차 재 현
클럽디 금강
경력 19년

홍 정 희
클럽디 거창
경력 19년



G+ Plus

G골프의 Plus 재미를 더하다!

클럽디 인터넷 고객 대상으로 예약 및 내장, 고객별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등급 점수로
고객별 6개월마다 차별화된 클럽디 G-Plus의 다양한 쿠폰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YIDO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safeD Contech Future Leader 산업안전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스마트 위험성평가
위험성 크기 평가, 조치/검토

위험요소 제거
추가위험 발굴, 위험요소 사전 제거

다국어 지원
Google AI 자동번역 기능 제공

안전 모니터링
GPS를 통한 출석/작업위치/동선

비콘
이동식장비 탈부착, 스마트폰 접근경고

커뮤니케이션
SMS, Mobile Push 알림 기능

클럽디 청담
운영시간 평일/주말 08:00 ~ 24:00

BOOK YOUR GREEN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9 B1, 1, 2, 3층 클럽디 청담 / 02-6403-7717

클럽디 속리산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중초로 386
안내 info_boeun@clubd.com 전화 043-540-8888
예약 booking_boeun@clubd.com 팩스 043-540-8889

클럽디 청담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39(소봉빌딩) B1~3F
안내 cheongdam@clubd.com 전화 02-6403-7717

클럽디 보은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평각상장로 230
안내 info_songnisan@clubd.com 전화 043-540-8000
예약 booking_songnisan@clubd.com 팩스 043-544-9600

클럽디 금강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안내 info_geumgang@clubd.com 전화 063-720-7700
예약 booking_geumgang@clubd.com 팩스 063-720-7799

클럽디 거창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398
안내 info_geochang@clubd.com 전화 055-945-2222
예약 booking_geochang@clubd.com 팩스 055-945-6060

클럽디 오아시스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엘시티 3, 4, 5, 6층
안내 info_oasis@clubd.com 전화 1566-8007



WWW.CLUBD.COM

CLUBD